

◆ 미 수은, 중소기업청(SBA)과 공동으로 중소기업 수출지원 노력 증대

미 수은과 미 중소기업청(SBA)은 최근 중소기업의 수출 증대를 위해 상호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다. 이번 협약의 내용은 미 수은과 미 중소기업청이 정기적인 회합을 갖고 유대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무역진흥제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한다는 것으로, 양 기관은 보증대상 상업은행 및 중소기업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, 지원제도 안내 등을 포함하여 각 기관이 운영중인 운전자본 지원제도에 대한 합동 마케팅 전략 개발에 공동 노력할 계획이다.

미 수은의 Eduardo Aguirre 부총재는 이번 협정 체결의 목적이 중소기업들이 미 수은 및 미 중소기업청이 운영하고 있는 제반 수출지원제도를 보다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. 미 중소기업청의 Hector Barreto 청장도 미국의 대외무역에 있어 총수출의 96%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하면서, 양 기관이 각자의

자원을 공유함으로써 미국 중소기업의 대외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. 미 수은과 미 중소기업청은 공히 원자재 구매, 제조, 신용장 개설 등의 수출 관련 선적전 수출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운전자본 대출 및 대외매출채권부 금융에 대한 지급보증을 지원하고 있으며, 각각의 지원제도에 대한 신청서 양식을 일원화하여 대고객 서비스를 강화하였다.

한편, 2001회계연도에 미 수은은 총 125억 달러 규모의 수출금융을 승인하였으나, 이 중 중소기업 수출은 16억 달러에 불과하였다. 이번 조치의 결실로 미 수은은 지난 5월 10일 뉴햄프셔주 소재 중소기업인 Hexaport International社의 對바레인 강철 프레임 제조설비 수출거래에 대하여 240만 달러의 수출신용보증을 승인하였다고 발표하였다. 현재 뉴햄프셔주 소재 전체 기업 중 25%인 30여 개의 기업이 수출에 종사하고 있다.

【金 暎 起】